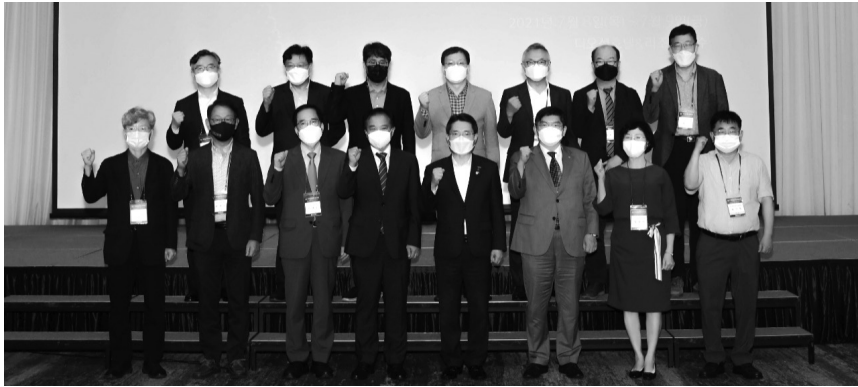


## 「2021년도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8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서

원자력계 연합단체인 원자력협의회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2021년도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한국원산)를 비롯하여 원자력협의회 산하 학회 및 단체의 회원과 관계자, 에너지기후변화학회, 가톨릭의대 등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방사선에 대한 이해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협의회 주요인사

이번 심포지엄의 개회사에서 임인철 원자력협의회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계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하고 원자력 기술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시훈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장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외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강재열 한국원산 상근부회장이 에너지전환정책 하에서 원자력생태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방사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 주제발표에선 조규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방사선 옹호와 방사선 혐오’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이종훈 카톨릭의대 교수가 ‘치료 방사선의 역사와 첨단기술’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원자력협의회 산하 단체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에 원자력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정책에 원자력의 기여와 전망이 실효성 있게 담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하였다. **KIIF**